



하나님은 토기장이예요

예레미야 18장 1-8절



진흙으로 여러 모양의 그릇을 빚는
사람을 토기장이라고 불러요.

어느 날 **하나님**은 **예레미야** 예언자에게
토기장이의 **집**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.



토기장이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,
진흙을 다시 뭉쳐서 다른 모양으로
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었어요.



토기장이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듯이
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빚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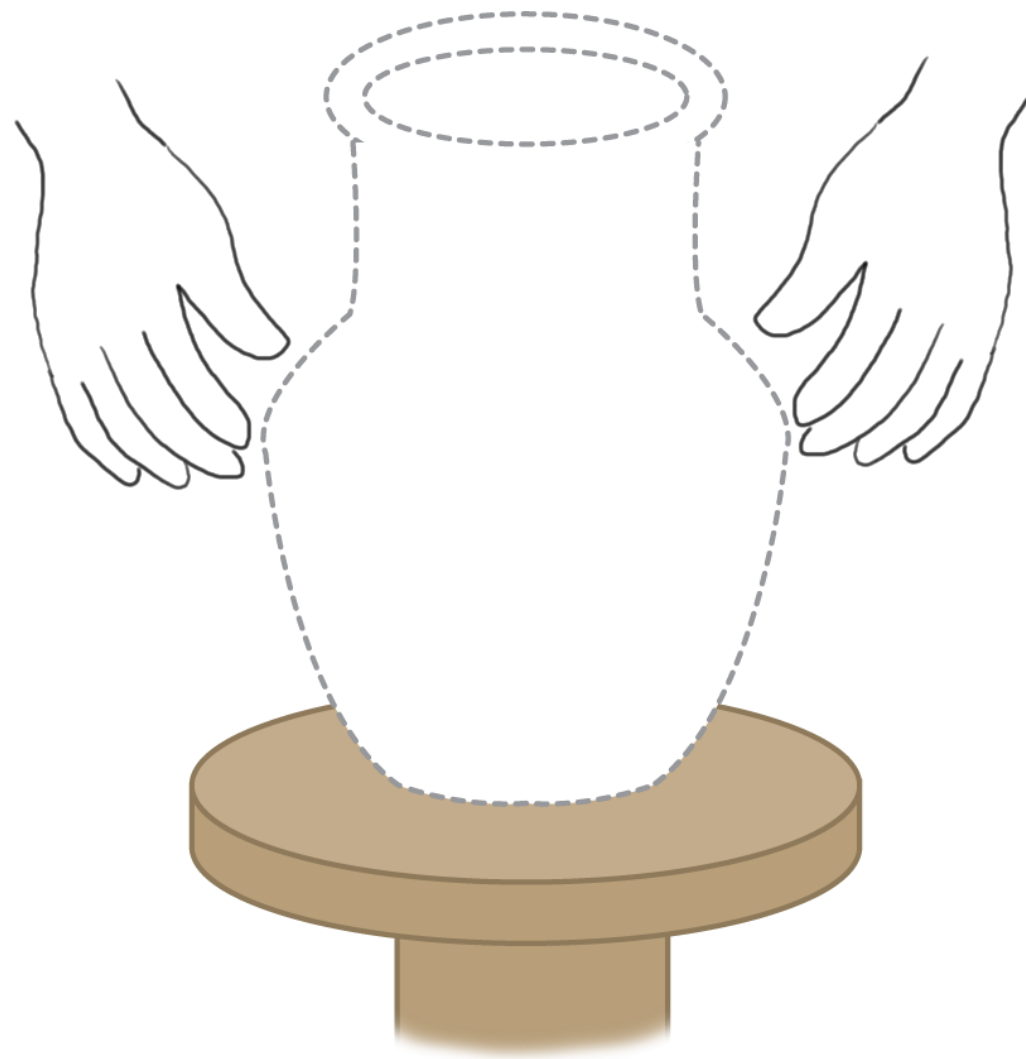




하나님도 **토기장이**처럼 자기 **백성**을
온전하게 만들려고 **일**하고 계세요.



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,
멋진 하나님 백성이 될 거예요.



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고
아름답게 빚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해 봐요!